

하태경 “연내 남북 국회회담 성사 시켜야”

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여, 판문점선언 비준 필요성 강조
바른미래 “보수도 새 시대 맞아야”…한국당 반대입장 고수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재개했다.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는 ‘실패한 외교’라며 공세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회담, 9·19 평양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의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라며 “한반도 분단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험도 없다는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종전선언, 비핵화 초기

단계 이행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제재 예외 사항으로 해서 경협 시간표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실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북군사협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제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군사합의서를 보면 NLL이남 감시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는데, 수도권 2000만명은 즉각적 위협에 빠졌다. 베트남도 (평화만 주장하다 이같이) 망했다”고 따졌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쪽 수역에서 (북한 도발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 북측 도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기동 훈련 등을 하지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NLL 포기 주장에는 “(보수파들은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NLL이 군사합의서에 들어가 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왜 들어있느냐”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65.3%

리얼미터 2주간 12.2%p ↑…한국당 2주 연속 하락 1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다시 65% 선을 넘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주간 단위 기준으로 전주보다 3.4%p 오른 65.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내린 30.3%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주간 12.2%p 급등했다. 이와 같은 상승 폭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상승세(7.4%p)보다 4.8%p 높은

수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5.9%를 기록, 7월 2주차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45% 선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당은 전주 보다 1.6%p 내린 17.0%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1.9%p 오른 10.2%로, 한 주 만에 10% 선을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5.7%로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3.3%로 2주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은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에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 초월 함께 나아갑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부터),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평화당 정동영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 “남북국회회담, 다음달 염두”

5당 대표와 오찬모임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오는 11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했고, 9월 27일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한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나름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평화가 자리 잡게 하느냐에 대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시간이 갈 것은 가

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한국당은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당연히 함께할 것이고, 평양에서 하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방북에 함께하지 못한 2당 대표가 꼭 남북국회 회담을 함께해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비준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남북국회

회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닿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휘말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도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신규택지 유출 논란의) 신창원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당이 말 한마디 한 것을 봤느냐”고 응수했다. 문 의장은 “법치주의는 대통령도 지켜야 하니 국회가 문제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치신인에 후원 금지’ 헌법소원

민주 지역위원장 20명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대선·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명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6조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정치신인과 경제적 약자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현직 의원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원의 정치인 시절 받은 정치자금 4000만원을 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22일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